

주말, 여기 놀이패한라산 '제20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공동체 마음 잇는 평화의 몸짓

4·6일 문예회관 주무대
국내의 광대들 제주에
“전국 최고 실력가 공연”
평화·인권 메시지 전해

몇 해 전부터 함께 걸어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끈을 놓지 않았고, 올해 두 번의 10년을 맞았다. 4~6일 제주도문예회관을 주무대로 펼쳐지는 '제20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마당극제)다.

마당극제는 제주 극단 놀이패한라산의 대표 행사다.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첫 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름을 지키며 제주 4·3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 역사가 지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무대에 풀어놓으면서다. 올해 마당극제 역시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이란 깃발을 올렸다.

올해로 스무 번째 걸음이지만, 이번 행사는 유독 준비부터 버거웠다. 코로나19 이후로 매년 행사 예산이 줄어들며 국내의 작품을 선뜻 초청하기 어려웠다. 이런 사정에 힘을 보태준 것은 도민들이었다. 놀이패한라산은 지난 7~8월 후원금 모집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목표액을 25% 넘는 금액이 모였다. 이와 별개로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신재균 놀이패한라산 대표는 “20회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마당극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작용한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쉽게 내려놓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제20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9월 4일 (금)		
19:00 여는 판국 고부리, 두루나무, 통영곶배 신나라 외	10:00 군병놀이, 도령마루 유복희, 알현시전, 황기단체 외	9월 5일 (토)
19:10 개막극·별별리 신오대, 놀이패한라산	17:30 광대마당 화살 연극하는 복수(여상익) (재주)	17:30 세 이장님 두근두근 사이터 (재주)
19:50 까치의 잘라진 하늘 Team kukin (일본)	18:00 내복 지정남 커뮤니케이션 (광주)	18:30 광대마당 고성오광대 문동복출 김수보 (재주)
	19:00 광대마당 허튼 덧배기춤 남기영 (고창)	19:00 광대마당 경신도 보릿대출 정승환 (부산)
	19:30 개막식 광대마당 심청가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김지영 (청주)	19:00 세 신구-기동타격대 전국 피크 (광주)
	19:30 달정아와 버들이 창작집단 창이 (대전)	20:10 백막극·재봉회 신오대, 놀이패한라산
		20:30 백막극

'제20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행사 일정.

놀이패한라산 제공

(극단) 내부에선 앞으로 30주년, 40주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정신적 동력이 됐다”고 했다.

마당극제는 4일 오후 7시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문을 연다. ‘여는 판국’으로 시작해 놀이패한라산과 산오락회가 함께 꾸미는 개막극 ‘별별리’가 무대에 오른다. 이후 개막식을 마치고 일본 팀의 마당극 ‘까치의 잘라진 하늘’이 관객을 만난다.

5~6일에도 제주를 물론 전국 각지 광대들의 마당극이 준비됐다. 광대 1인을 중심으로 하는 ‘광대마당’은 연기하는 복수(여상익, 재주)의 ‘화살’, 지정남 커뮤니케이션(광주)의 ‘내복’, 남기영(고창)의 ‘허튼 덧배기춤’, 김지영(청주)의 ‘심청가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특유의 연기와 춤, 소리에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더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지켜보고 초청한 작품”이라며 “전국 최고의 실력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재작년부터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마당극제는 이번 장소로 문예회관을 택했다. 5일 오전

10시 4·3유적지 도령마루에서 진행되는 ‘군병놀이’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진행된다. 부대 행사도 더했다. 제주작가회의가 준비한 ‘4·3시화전’과 꽃마리협동조합이 함께하는 ‘동백비누 만들기 체험’이다. ‘마당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열린관’을 지향한다는 마당극의 또 다른 변화다.

행사는 마당극이라는 문화예술로 4·3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연결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4·3이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 평화와 인권의 미래는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라면서다. 놀이패한라산은 “마당극이 가진 열린 소통과 참여의 힘을 통해 아픈 역사의 기억을 함께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모든 공연은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놀이패한라산이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메세나협회, 제주은행이 후원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목 관아 수놓을

‘가곡의 밤’

쿨림풍악

9/5(토) 19:30-20:30

합연자 소프라노 전은혜, 바리톤 김원

9/4(금) 19:00-19:30

에인트조영 Jazz Trio

도서관 소식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2026 찾아가는 제주어탐험대’ = 도내 초·중 학생들이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제주어책놀이지도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

수업은 제주어 그림책 함께 읽기, 생활 속 제주어 어휘와 표현 익히기, 낱말 카드와 퀴즈, 말놀이, 역할놀이 등 학생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별로 2차시, 총 80분간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내 초·중학교 130개 학급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064-745-7101.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제주 그림책 책보따리 제작 프로그램’ = 한라도서관의 ‘도서관 거점 책문화생태계 연계 ‘독서문화벨트 사업’에 선정되며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직접 책보따리를 만드는 체험은 이달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어 그림책 ‘청피에 새겨진 기억’, ‘원다리, 원다리’를 깊이 있게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들이 이를 보다 친근히 만날 수 있는 놀이 방법과 질문, 활동 자료 등을 함께 기획한다. 이후 직접 놀이감을 만들고 여러 차례 체험·수정하며 각 모둠만의 제주 그림책 책보따리를 완성한다.

성인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서관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4-748-2611. 김지은기자

예술꽃 산양 결과보고전 입주작가 작업실도 공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꽃 산양’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을 공

개한다. 이들이 이곳에 머물며 발견한 각자의 장소를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으로 풀어낸 결과보고전도 연다.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5월 입주한 ▷고경화 (서양화·설치) ▷김

시훈 (미디어아트) ▷김진혁 (사진) ▷최다이 (동양화) ▷부지영 (영화) ▷양화연 (설치) ▷장숙경 (설치) 등 7인이 작업실을 공개한다.

결과보고전 ‘비고체 장소’는 10월 2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지은기자

승

축

진

서기관

김호봉

부 : (재)김두현, 모 : 강복성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달1리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취

축

임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대형

사무관(서귀포시 도시과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은아빠가족

취

축

임

부이사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부 : 故강상익 · 모 : 홍초자)

부이사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염통악계 대웅파 종친회

한라일보가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수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매년’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